



농협 고창군지부, 어린이 날 학습꾸러미 전달

NH농협 고창군지부(지부장 이문구)는 지난 3~4일 고창군 관내 5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필기구 등 14가지 학습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학습꾸러미 95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제이회 어린이날을 맞아 농촌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농촌지역의 교육 여건 향상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했다. 필기구, 노트, 미술용품 등 14개의 알찬 내용의 학습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학습꾸러미'는 농협중앙회의 주요 사회공헌활동 부서인 농협재단이 후원했다. 이문구 지부장은 전달 행사에서 "농촌지역에서 학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협은 장학사업 등 지역사회 학교와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한부모가족 위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남원시는 지난 4일 한부모가족 29명(12가정)에게 엄마도 엄마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라는 주제로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것으로, 가족의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자기돌봄을 실행하는 취지의 엄마는 꽃바구니, 차는 공기정화 식물 화분을 만들면서 개인의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 가족의 화합을 동시에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한 이**씨는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꽃바구니를 만들어 마음에 위안을 많이 받았음은 물론, 생계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오늘 같은 활동으로 마냥 행복해질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호석 대일변산관광 대표, 부안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주)대일변산관광개발 김호석 대표가 지난 4일 부안군의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500만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대일변산관광개발은 격포관광단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로 2021년 부안군과 사업협약을 맺고 2026년까지 총 1200억 원을 투자해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총 4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호석 대표는 "부안이 모두의 행복한 터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작은 정성이나마 전할 수 있어 기쁘다"라며 "기부금이 지역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 부안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더욱 활성화되길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부안발전을 응원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부안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김제 자봉센터, 어버이 날 맞이 손뜨개 브로치 전달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남궁행원)는 지난 4일 어버이 날 맞이 손뜨개 카네이션 브로치 300개를 전달하며 가정의 달 따뜻한 시간을 마련했다. 한편 한편 정성으로 만들어진 손뜨개 카네이션 브로치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관내 사회복지기관인 김제노인복지센터, 성안노인복지센터, 김제노인종합복지관에 각 70개씩 전달되었다. 또한 생생마을관리소에서 주최한 성덕면 남포마을 효잔치를 방문하여 잔치에 방문한 어르신 90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인부를 확인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카네이션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어버이날 찾아주는 이 하나 없이 외로운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예쁜 카네이션을 만들어 달아주시 너무나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궁행원 센터장은 "봉사자들의 손끝으로 만들어내는 따뜻한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힘을 더욱 키워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신규프로그램 지원사업 "손끝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으로 손끝 사랑 손뜨개 봉사단(회장 엄정희)이 프로그램에 활동하고 있으며,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들에게 인부 인사와 함께 전달할 카네이션 브로치를 제작하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난 100년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전주교대, 개교 100주년 맞아 지역사회 사랑나눔 펼쳐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개교 100주년 기념 지역사회 사랑나눔 캠페인을 펼쳤다고 전했다.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은 전주교대뿐만 아니라 전주·군산부설초등학교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모두가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4일 대학 본부에서 행복박스 전달식을 갖고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업에 그동안 준비해 온 기부금 500원과 학습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사랑나눔 활동을 추진해 온 그동안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대학 구성



원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업 운영책임자 장은 "전주교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품을 전주 지역 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위탁가정 아동·청소년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병춘 총장은 "지난 100년간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 온 교원양성대학으로서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 부남서 어버이날 맞아 짜장봉사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에 주최하고 (사)무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강우)가 주관한 '무주군과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지난 4일 무주군 부남면 다목적강당에서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함께 전라북도, 착한 한끼 나눔'은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특히 이번 활동으로는 무주군 부남면에 종식당이 없는 것을 파악하여, 메뉴를 짜장면·탕수육 및 5찬으로 선정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한끼 식사 대접을 진행했으며, 식사 봉사와 같이 7개 전문봉사활동 및 문화공연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높은 호응과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에 이강우 이사장은 "무주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주관하게 되어 감사한다고 했으며, 자원봉사자의 작은 손길로 행복한 무주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군수는 "우리 이웃과 고장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쳐주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성 기자

남원시, '제51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 개최

남원시는 시가 주최하고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인영희)가 주관한 제51회 어버이 날 기념행사를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지난 4일 오전 11시 남원컨벤션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 어버이입니다"라는 주제로 읍면동 어르신들을 초청해 △캐릭터인 달아드리기 △식전공연 △국민의례 △효행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식기 제작(어머니의 마음) 등 다양한 감사 행사를 진행했다. 표창장은 효행자 부문에서 김나정(이백면), 이나영(대산



면), 유공자 시장 표창에는 황지연(왕정동), 김예인(노인장애인과) 직원, 지역사회 경로효친 사상 확산 기여자 고미애(향교동)씨가 남원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남원농협(조합장 박기열)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사과골공탕을 후원해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에게 훈훈함을 전달했다. 기념사에서 최경식 시장은 "바쁜 와중에도 내실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여성새일센터, 국비지원 시니어케어 전문가 과정 개강

남원시는 여성새일하기센터에서 오는 9일 올해 마지막 직업교육훈련인 '시니어케어 전문가 과정'을 개강한다고 밝혔다. 교육 참가자들은 취업에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20명으로, 이번 과정은 노인복지 분야 직종에 관심이 많은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교육과정은 교육기간 45일(총 180시간) 동안 노인복지 실무와 인지활동 지도사자격 과정, 직무 소양교육, 취업대비 교육,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한편 센터는 최근 지역사회의 초고령화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돌봄 종사자들의 증가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발맞춰 해당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생들은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양근 센터장은 "직업교육훈련은 경력단절 여성들



에게 취업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센터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기전대, 졸업생-재학생 취업 멘토링

전주기전대학 진로취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3일 음악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재학생-졸업생 간 취업 멘토링(Mentoring)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2011년 졸업한 선배가 예비 실기교사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특강과, 멘토링을 통해 재학생들이 학업 및 취업 준비 시에 느끼는 고충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마련했다. 최은아 학생(2학년)은 "졸업생 선배의 특강을 통해 예비 실기교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김이나 학생(1학년)은 졸업생 선배의 산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할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덕현 산학협력처장은 "재학생들이 졸업생 선배의 조언을 통해 교수님과 나누지 못하는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졸업생과 재학생의 더 많은 교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시새마을회, 어린이 날 사랑의 물품 전달

전주지역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린이날을 앞두고 전주영아원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와 전주시새마을부녀회(회장 강영미), 새마을지도자전주시협의회(회장 박찬석), 새마을문고전주시지부(회장 이윤자)는 지난 3일 전주영아원에 아이들을 위한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새마을지도자 회원들이 정성을 모아 마련한 스티커놀이북과 칼라점토 등 학습용품 7종과 과일 등이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의 여파로 전주영아원에 도움을 주던 손길과 관심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이번 후원 물품 전달을 통해 영아원 아이들이 따뜻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송병용 전주시새마을회 회장은 "아이들을 위해 더 풍족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이 미안할 따름이지만, 아이들이 즐거운 어린이날을 보내는 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더 많은 어른들이 우리 주변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희망하며, 전주시새마을회는 앞으로도 따뜻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활동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전주협, 어린이날 사랑의 선물 전달

바르게살기운동 전주시 협의회(회장 황인두) 사무실에서 지난 3일 바르게살기운동 임원 및 동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1번째의 어린이날을 맞아 사랑의 꾸러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꾸러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 초등학생 100가구에 전달되었으며, 꾸러미 속에는 종합장 필통, 연필, 색연필, 지우개, 과자와 희망 화분으로 로즈마리가 담겨 있다. 황인두 회장은 "어려운 환경의 한 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전주시의 미래,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면서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확인하고 함께 바르고 행복한 나눔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전주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호원대 씨름부, 체육회장기 전국대회 동메달 획득

호원대학교 씨름부가 올해 신설된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기씨름대회에서 대학부 개인전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에 따르면 호원대 씨름부는 지난 2~3일 2일간 전남 보성군 다량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기씨름대회에 참가 대학부 개인전 정장급(88kg) 체급 이현성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현성(스포츠클ubs호화과 2년) 선수는 32강 한판대 심건용, 16강 단국대 김영기, 8강 대구대 진선우 선수를 차례로 이기고 준결승에 진출했다. 문형준 감독은 "이현성 선수가 대학 진학 후 첫 입상이다. 항상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의 결과라 생각한다"며 "전국대회에 출전해 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힘든 운동을 이겨내며 항상 저를 믿어 주는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은성 기자